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글로컬)

wmit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우수 성과 사례집

사업개요

1. 과제 일반현황

과제명	의료기기 글로벌 시장 확대 및 글로컬(현지화) 지원		
주관기관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총괄책임자	김권기
총 수행기간	2015. 8. 1. ~ 2018. 4. 30. (33개월)		
당해연도 수행기간	2016. 6. 1. ~ 2017. 4. 30. (11개월)		
총 사업비	(국비) 2,262,000천원	당해연도 사업비	(국비) 754,000천원

2. 사업 추진 체계

(재)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주관 : 강원도 원주)

·총괄책임자(김권기)
·참여연구원 총 6명

·국제 전시회 공동관 구성
·수출상담회 개최
·해외 현지화 지원사업
·수출 촉진 지원사업

운영위원회

·사업내용 타당성 검토
·지원 사업 자문
·사업계획 및 사업비 검토

실무위원회

·성과관리
·네트워크

(재)충북테크노파크 ([참여1]충청북도 청주)

·과제책임자(홍지훈)
·참여연구원 총 3명

·시장개척단

(주)제넥스 ([참여2]강원도 원주)

·과제책임자(김동삼)
·참여연구원 총 3명

·온라인 마케팅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우수사례기업

㈜창의테크 '니어베베'

"전세계의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육아의 新 패러다임을 제공하는 ㈜창의테크-'니어베베'

극한직업 육아의 현실

육아전문가 F.더드슨은 육아를 '1년 365일 내내 쉬는 시간이 없는 직장을 갖는 일'이라고 표현했다. 그 정도로 육아는 극한직업 중 하나로 직접 해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렵고 힘들다고 한다. 말을 할 수 없는 신생아나 영유아의 경우 특히 심하며 사실상 전쟁과 다름없는 것이 육아의 현실이다. '엄마는 위대하다'는 표현이 괜히 나온 말은 아닌 것이다.

그중에서도 부모들이 육아를 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아이가 아플 때이다. 아직 말을 배우지 않은 아이들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말하지 못하고 계속 울기만 하기 때문에 초보 부모들은 아이가 왜 우는지도 모른 채 밤새도록 간호해야 한다. 부모들은 육아 피로에 지쳐 육아와 보이지 않는 사투를 벌이고 있다.

육아 혁명이 시작되다

그런데 여기 육아에 지친 부모들에게 육아 혁명을 가져다 줄 구원자가 있다. 엄마의 마음으로 육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겠다는 주식회사 창의테크(이하 창의테크)이다. 창의테크는 기존의 의료시스템에 IT 기술을 융합시킨 영유아의 건강 상태와 실내 육아 환경정보 측정기술이 탑재된 2등급 전자체온계 NearBéBé NB-TM1(이하 니어베베)를 출시했다.

니어베베는 아이의 기저귀나 옷에 착용해 체온, 호흡, 수면자세 등 아이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기반 생체신호 측정 장치로, 아이가 직접 착용하고 있을 때 위험한 상황이 오면 부모가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웨어러블 헬스케어 의료기기이며, 국내 기준 전자체온계로 구분되는 장비이다.

실시간으로 문을 연 약국과 병원 정보를 함께 담아 초보 부모더라도 위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품의 디자인 또한 아이가 착용했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콤팩트하지만 삼킬 수 없는 크기로 제작해 편의성과 디자인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또한, 의료기기 품질 적합 심사(GMP) 등 까다로운 심사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들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아이에게 니어베베를 착용시키고 다운 받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부모의 스마트폰에 블루투스로 연결을 시키면 아이의 체온, 복부 움직임 및 수면자세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체온의 경우에는 일정 평균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부모의 스마트폰에 알람이 울려 즉시 대처할 수 있다.

또한, 신생아의 경우 엎드렸을 때 혼자 뒤집을 수 없어 호흡곤란 증상을 야기하기 때문에 엎드림을 인식하면 알람을 울려준다. 아이가 착용하고 있지 않을 때는 실내 온습도계 역할을 해서 부모가 아이에게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했다. 니어베베는 4개의 언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지원하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에게도 활용가치가 높은 장비이다.

부모의 마음에서 시작된 니어베베

영유아 모니터링 기술을 기반으로 지난 2016년 4월 세상에 나온 스타트업 기업 창의테크는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실현하자는 기업이념을 가지고 있다. 창의테크가 처음부터 영유아를 대상으로 제품을 기획했던 것은 아니다. 의료장비 과포화 상태에 4차 산업혁명까지 도래한 이 시대에서 굶지 않는 아이템을 찾던 중 창업 멤버로 구성된 신승우 본부장 아이의 열감기로 고생했던 기억과 핵심 연구진인 김가람 연구소장의 니어베베 아이디어, 그리고 상품 기획진 이였던 이상민 전략기획팀장의 아이가 탄생함과 동시에 제품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구축되었고, 니어베베는 세상에 나올 준비를 하기 시작한다.

신승우 본부장은 창의테크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구성원 모집을 시작하였고, 그 당시 본부장과 연구소장을 돕던 이상민 전략기획팀장은“어떤 아이템이 창의테크의 미래를 상징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아이가 태어났다. 아이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영유아 관련 제품들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특히 아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아이피 카메라가 눈길을 끌었다. 아이와 부모의 방이 따로 있는 해외에서는 아이의 행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많이 사용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모가 아이와 함께 자는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없을 것 같았다. 그러다 아이의 모습만 모니터링하는 것이 아닌 아이의 몸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번뜩 떠올랐다”라고 말했다.

아버지의 마음에서 시작된 아이디어 하나로 신승우 본부장, 김가람 연구소장, 이상민 전략기획팀장은 함께 니어베베 출시를 위해 전 직장을 과감하게 퇴사하고 창의테크와 함께 하게 됐다. 이렇게 공대 나온 아빠들이 모여 24시간 아이 옆에 붙어있지 않아도 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을 직접 만들기 시작했다.

실제로 매년 국내 기준 연간 35만 명의 출생아 중 0.3%인 1천여 명이 영유아 돌연사 증후군으로 사망하고 있다. 영유아 돌연사 증후군은 영유아가 비정상적인 호흡 양상 혹은 과도한 체온상승징후가 의도치 않게 급증해 사망하는 현상으로, 고열이나 잘못된 수면자세 등이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부모가 아이 옆에 24시간 붙어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아이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의료기기의 필요성을 느낀 창의테크는 니어베베 출시에 박차를 가했다.

창의테크, 창업부터 니어베베 출시까지

창의테크는 니어베베로 2016년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이하 원주테크노밸리)에서 주최한 차세대 의료기기 창업경진대회 대상을 수상함과 동시에 국내 의료기기 업계로 이름을 알렸다.

또한, 2017년 제18회 전파방송기술대전에서 유수의 대기업·중견기업 틈에서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당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창업을 시작할 때는 모든 직원이 공학사 이상의 기술 인력으로 구성돼 시작했지만 현재는 전략기획팀, 영업마케팅부 및 회계부, 기업부설연구소 서버연계 기술자, 의공학 전문가와 제조총괄팀 등 필요 하에 전문 인력을 계속적으로 영입해 현재는 9명의 인원으로 구성돼있다. 자체적으로 IT, 소프트웨어 분야 용역 컨설팅을 진행하고 창업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 선정으로 연구개발비와 인건비를 소화했다.

또한 더 좋은 품질을 위해 OEM 방식이 아닌 자체 생산 방식을 선택했다. 전 직원이 전문 인력이기 때문에 단시간에 제품을 출시할 수 있었다. 보통 제품 기획부터 출시까지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창의테크는 창업부터 니어베베 기획, 제품 인증, 출시까지 1년 반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상민 전략기획팀장은 “신기술이 아닌 기존의 기술에 아이디어를 접목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오래 투자하면 대기업들과의 경쟁구도가 심해진다. 저희는 최대한 빠르고 정확한 시점에 출시해야 한다는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문 인력을 많이 고용해 제품 출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비약적인 전문 인력 고용은 정부 지원 사업에서 고용 성과를 낼 수 있었고 창의테크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줬다.

창의테크가 지금처럼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원주테크노밸리의 지원이 있었다. 지난 2016년 차세대 의료기기 창업 공모전에서 창의테크의 니어베베가 대상을 수상한 이후 창업부터 아이디어 컨설팅 및 제품화, 인증, 마케팅, 판로개척까지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잘 유지하며 시작과 현재를 함께 밟아나가고 있다.

한 가지 예로 원주테크노밸리에서 추진한 경제협력권(글로컬) 사업 중 국제 전시회에 ‘벤처 부스’를 운영하여 창업 단계의 소규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무료로 전시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업을 통해서 두바이 국제의료기기 전시회(ArabHealth 2018)에 참가하여 주요 바이어 발굴을 진행하였다. 또한 강원의료기기전시회(GMES 2017)를 통해 만난 네덜란드 바이어와 업무를 진행하던 중 원주테크노밸리의 ‘서울 국제의료기기 전시회(KIMES 2018) 해외 바이어 초청 지원 사업’을 통해 해당 바이어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추가 미팅을 진행하고, 공장 투어를 진행하여 업무 진행이 순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공격적인 국내외 지적 재산권 출원 활동과 해외 진입 프로젝트를 위해 유럽 CE 인증을 확보한 상태며, 미국 FCC 인증 역시 추가로 확보될 예정이다.

창의테크는 현재, 기술보증기금 벤처기업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장관상 수상, 도내우수기업 등의 기업 이미지를 구축하며, 현재 육아 혁명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기 위해 오늘도 내일도 최선을 다하는 기업이 되고자 전임직원은 항상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우수사례기업
성원메디칼

"회사와 직원이 win-win하는
의료기기계 구글이 되고파"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인 카테터

때로는 누군가의 도전이 여러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카테터 국산화를 성공시킨 성원메디칼이 바로 그 예이다. 혹여 카테터(catheter)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카테터는 의료용 소재를 이용, 압출 성형해 만든 얇은 관으로 의학 분야에서 다양한 기능으로 쓰이고 있다. 주로 병을 다루거나 수술을 할 때 인체에 삽입하는 의료용 기구로 사용된 재료나 만드는 방식에 따라 심혈관, 비뇨기과, 위장, 신경 혈관, 안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다 보니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에 맞지 않는 제품으로 환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의료 환경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던 1996년, 성원메디칼의 도전은 환자들의 삶의 질을 더욱 높였다.

국내 최초 카테터 국산화 타이틀을 거머쥐다

1996년에 설립한 성원메디칼은 지난 2016년 창립 20주년을 지나왔지만 총 1백20명 직원의 60%가 청년으로 구성된 젊은 기업이다. 성원메디칼이 처음 생산한 제품은 응급실이나 마취과에서 급하게 환자에게 약물을 주입하거나 심박수를 모니터링 하는데 사용되는 중심정맥용 카테터(CVC)로, 국내 최초 국산화 타이틀의 시작을 알린 제품이다.

이후 배액용 카테터로 미국에서 특허등록을 받았고 더불어 간호용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물조절기가 달린 수액세트는 성원메디칼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했다. 이대희 상무는 현재까지 품질 업그레이드를 진행해 정확한 약물 유량 주입이 가능하다고 자신 있게 말 한다. 덧붙여 “식약청의 가이드라인은 20%의 편차를 가지고 있지만 성원메디칼 제품은 5~10% 이내로 저희 제품을 써보신 분들은 정확한 유량조절 기능에 제일 만족해한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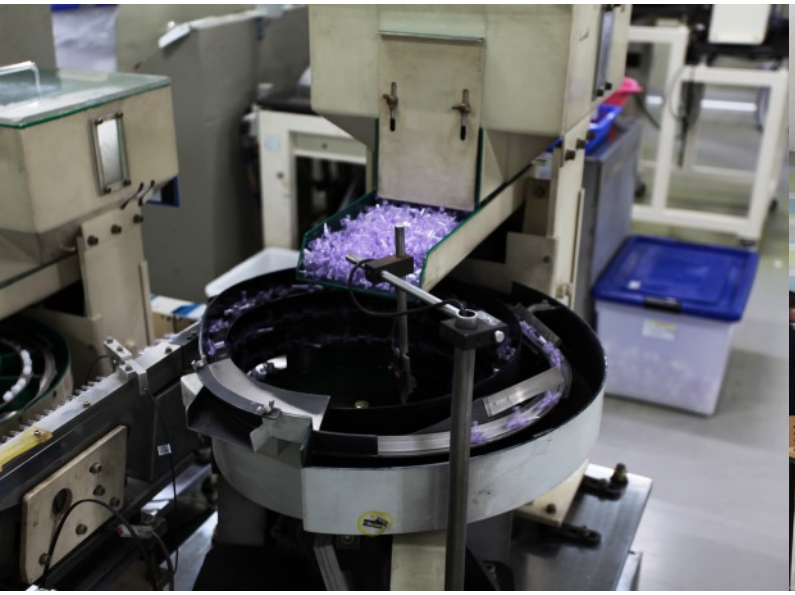
또한 감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항균 기능이 들어간 원자재를 개발했다. 기존에는 카테터 도관에 항생제를 코팅하는 방식이었지만 부작용의 변수가 많은 것이 단점이었다. 특정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게 항생제 코팅물질이 치명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항생제 코팅물질 부작용으로 다수의 사망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튜브를 구성하는 다공성 구조인 제올라이트 성분에 은이온을 배합한 후 카테터의 기본 원료인 폴리우레탄과 적정 비율로 섞어 실제 체액에 닿았을 때 항균 기능이 발생되도록 했으며 식약청 허가를 받고 국산화에 최초로 성공했다.

뗄 수 없는 짝꿍, 카테터와 가이드와이어

카테터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안내선 역할을 하는 가이드와이어가 필요하다. 삽입한 가이드와이어를 따라 카테터를 삽입하므로 이 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그런데 타 업체들은 카테터나 가이드와이어 중 하나만 제작하기 때문에 가이드와이어를 직수입 혹은 OEM 수입한다. 하지만 성원메디칼은 지난 2010년부터 자체 개발을 시작해 현재 가이드와이어를 제작할 수 있는 설비를 100% 갖추고 있으며, 심혈관 · 뇌혈관 · 복부 혈관 등 신체부위별로 다른 요구사항이 반영된 코어와이어 가공 기술이 핵심적으로 작용한다.

가이드와이어는 성원메디칼이 올해 가장 주력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술이다. 우리가 위내시경 할 때 삽입되는 가이드와이어가 보기에는 그냥 철사처럼 생겼지만 그 속에는 가공 · 용접 · 코팅 등 고난도 기술과 노하우가 담겨있다. 기존에 나와 있는 가이드와이어를 역설계해서 성원메디칼만의 특징을 살려 만들었으며 식약청 허가 등록을 마치면 올해 말에는 판매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대희 상무는 여러 글로벌 회사의 협업 및 거래 제안 등을 근거로 성원메디칼의 가이드와이어가 의료기기업계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가 될 것이라 말한다.

이대희 상무는 “두 가지 모두를 원스톱으로 동시 생산하기 때문에 경쟁사들보다 품질관리면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이제 카테터&가이드와이어 하면 성원메디칼이 떠오를 수 있도록 입지를 다져가는 중이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해외시장 및 수출판로 개척을 큰 목표로 삼고 있다. 덧붙여 우리의 기술로 환자의 감염률을 줄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쁘다” 라고 말했다.



노력으로 극복하고 성장하라

하지만 성원메디칼이 처음부터 승승장구하지만은 않았다. 항상 제품을 개발하고 출시를 할 때 수많은 검증을 통과하지만 의료기기이다 보니 사용자에 따라 변수가 무궁무진했다. 더불어 불량이라는 지적도 나오면서 생산 환경에 더욱더 신경을 썼다.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제품이다 보니 청결적인 작업환경이 필요했다. 생산을 위해 압출기 6대, 다양한 사이즈의 사출기(틀) 18대 등 많은 기계들이 작동되는데 아무리 깨끗하게 관리한다고 해도 사람이 드나들면 유해물질이 유입되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완전 자동화 진공 오토 피딩 시스템을 구비해 이물질 등의 유해물질이 들어갈 수 있는 경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또한 자체적으로 식약청 자문과 세스코 이용 등 품질과 환경관리에 힘썼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료기기 기업에서는 이례적으로 SQ인증(서비스 품질 인증)을 획득했다. 더불어 이노비즈 등 기업으로서 받을 수 있는 대부분의 인증을 받는 등 난관에 부딪혀도 포기하지 않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며 극복해 나갔다. 기획을 할 때도 병원과 접촉해 현재 의료 실정이 반영된 요구 사항을 듣고 이에 충족되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던 지난 2011년 성원메디칼의 연구 전담부서가 등록되고 2015년도에 연구소가 정식 등록을 받아 현직 의사들이 개발에 참여하게 되면서 각 병원의 요구 사항에 맞는 맞춤 생산이 가능해졌고 이는 성원메디칼이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매출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2016년 기준 2백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올해 2백30억 원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성원메디칼의 매출은 평균 7-10%에서 최대 20% 성장 폭으로 꾸준히 상승세를 달리고 있으며,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의료기기 시장에서 외국계 제품을 제외하고 최대 4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이제는 해외로!

올해 5월 베트남 호찌민에 성원메디칼의 공장이 새롭게 신설된다. 올해 가장 큰 프로젝트인 베트남 공장 건설은 건평 2천 평에 달하는 면적으로 지어질 예정이며, 주로 물량이 많이 필요한 간호용품을 생산하게 된다. 한 가지 예로 약물 조절기가 달린 수액세트는 현재 한국에서 평균 백만 개 이상이 생산 ·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물량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한계에 부딪힌 것이다.

베트남 공장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국의 공장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직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생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생산부 및 품질관리과 직원들이 해외파견 및 순환근무 체제로 진행되며 이 밖에도 약 2백50명의 직원을 현지에서 고용할 예정이다.

이대희 상무는 “국내에서는 많은 기술을 요하는 제품을 중점적으로 제작해 Made In Korea로 해외로 수출해 의료기기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넓히고, 베트남에서는 대량생산을 주목적으로 현재 성원메디칼이 부딪힌 한계를 극복할 것”이라며 “젊은 직원들이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현장에서 부딪혀보며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라고 말했다. 또한 성원메디칼은 중국으로도 뻗어 나갈 계획이다. 경제협력권(글로컬) 사업으로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와 (재)충북테크노파크 지원으로 중국의료기기 전시회 참가의 기회를 받아 지난해 10월 중국 쿤밍에서 개최된 CMEF Autumn 2017에서 중국 의료기기 시장현황 파악 및 바이어 확보 등 좋은 성과를 이루며 중국 수출에 청신호를 켰다. 또한 2017년 12월 개최된 의료기기 해외바이어초청 수출 상담회를 통해 7개국 바이어들과 상담을 진행했으며 바이어들은 성원메디칼 제품에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이스라엘 상공회의소 중개로 참가한 바이어 투자회사에서는 의료기기 제품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향후 투자의향을 보였다. 12월 행사 후속으로 올해 3월에는 대만 바이어가 충북 공장 2차 방문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성원메디칼에서 개발하고 있는 제품의 현지 인증절차만 남겨놓은 상황 이라 금년 내 수출계약의 가시적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의료기기 업계의 ‘구글’이 되자

이대희 상무는 성원메디칼이 한국 의료기기계의 구글(google)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역량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업으로 말이다. 직원들이 참신하고 세련된 아이디어를 많이 낼 수 있도록 건물 내 인테리어도 많은 신경을 썼다고 한다. “사람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아이디어가 많이 잠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을 발휘할 때 업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근무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라고 강조했다.

건물 내부를 둘러보니 보드판을 자주 목격할 수 있었다. 이는 직원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고 각자의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성원메디칼의 배려였다.

뿐만 아니라 회의 시간에는 신입직원이어도 눈치 보지 않고 예의를 지키면서 본인의 의견을 거침없이 피력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 또한 이색적이었다.

이에 대해 이대희 상무는 “직원들이 상사가 하달하는 업무만 보고 회의 시간에는 받아 적기만 하다 끝나는 것이 안타까웠다. 그런 분위기의 기업은 군대 같고 획일적인 본인의 경험 전달 수준밖에 안되고 발전이 없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자유로운 회의 분위기를 만들어 모든 직원이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라고 말했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우수사례기업

㈜대양의료기

"중국의료기기 시장에서 한국을 외치다!"

뿌리 깊은 50년의 역사, ㈜대양의료기

중국시장에 한걸음 내딛다

중국 의료기기 시장의 규모는 2014년 기준 한화로 약 46조원의 규모이며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연평균 성장률로 보았을 때 한국이 8.4%, 세계 평균이 6.5%인 것에 비해 중국은 20.6%를 나타내며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의료기기 시장이다.

이에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이 중국 현지화 전략으로 중국 의료기기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그 중 (주)대양의료기(이하 대양의료기)는 중국 상해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지난 4월 11일부터 4일간 진행된 중국 상해 국제의료기기전시회(CMEF Spring 2018)에서 중국기업 Jiansu Rixin Medical Equipment (이하 Rixin Medical)과 SKD 방식의 수출 계약이 성사돼 조명을 받고 있다.

대양의료기는 해외 진출 실적이 미미하던 때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이하 원주테크노밸리)의 중국 현지화 사업을 통해 만난 중국의 응급의료 · 재활기기 업체와 수차례 접촉한 결과 각 업체 간의 공장 방문, 현지 사정 파악 등을 거쳐 SKD 방식으로 총 13가지 품목을 수출하기로 계약했다.

이는 테크노밸리에서 추진한 경제협력권 비R&D 사업인 '중국 현지화 지원 사업'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다. 대양의료기와 Rixin Medical은 원주테크노밸리 김권기 기업 지원본부장의 소개로 독일국제의료기기전시회(MEDICA 2017)에서 처음 만났다. Rixin Medical은 응급의료 사업에 집중하고 있었으나 물리치료 분야에도 26년의 경력이 있는 기업으로 재활기기사업 확장을 고심하고 있었다. 독일 첫 미팅 이후 2017년 12월 Rixin Medical은 원주에 위치한 대양의료기를 방문해 구체적인 사업을 협의했다. 그 후 2018년 2월에는 대양의료기가 중국을 방문해 Rixin Medical의 제조공장을 시찰하고, 수출을 위한 심도 있는 회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이어진 2018년 3월 서울국제의료기기전시회(KIMES 2018)에 서의 미팅을 거쳐 지난 4월 중국 상해 국제의료기기전시회에서 수출 계약식을 체결했다. 중국 현지화 지원 사업은 10여 년간 의료기기 해외마케팅 경험을 가지고 있는 김권기 본부장이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1:1 비즈니스 매칭부터 비즈니스 협상까지 일련의 과정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성과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대양의료기 윤정섭 대표는 "원주테크노밸리에서 연구, 개발,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받았고 그것이 밑거름이 돼 현재의 성과를 내고있는 것"이라며 "원주테크노밸리가 중국 현지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가능 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제 중국 수출에 첫 발을 내디뎠으니 앞으로 중국 비즈니스 개발이 잘 이뤄지기를 바란다"라며 "미국 FDA 인증도 받았으니 미국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2007년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인 이노비즈(INNOBIZ)를 획득하고 이 밖에도 한국무역협회, 수출유망 중소기업 선정, 벤처기업 등록, 수출대표기업 대통령 표창 등 의료기기 종합 메이커의 입지를 다졌다. 대양의료기 매출의 90%는 수출을 통해 발생되며 수출유망 중소기업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현재 다양한 제품을 전 세계 50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대양의료기 그 50년의 역사

대양의료기는 윤정섭 대표의 부친이 1970년 대양의료기 상사로 설립해 근 50년의 역사를 가진 의료기기 및 장비 제조 전문 업체이자 유통업체이다. 1987년 부천부지에 공장을 건설하면서 제조 생산을 시작했다. 지난 2005년 의료분야 국제표준 ISO 인증 취득, 2006년에는 우수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KGMP) 인증을 획득하고 본사와 공장을 원주로 이동하면서 원주테크노밸리의 지원을 받게 됐다.

효과적인 품질 시스템을 기반으로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품질 정책으로 삼아 주문 접수, 제품 개발, 출하까지 모든 공정 과정에서 품질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끊임없는 기술 연구와 개발, 고객의 신뢰와 사랑, 글로벌 마케팅을 비전으로 원칙과 기본을 준수하고 창의와 유연성, 도전의식, 지속적인 혁신, 결과에 따른 보상을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업의 가치로 여기며 운영에 임하고 있다.

한편 대양의료기는 최근 몇 년간 ▲에스테틱 ▲물리 치료 ▲OEM &ODM ▲연구개발 등 4개의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에 모든 자원을 집중투자하고 있다.

재활부터 뷰티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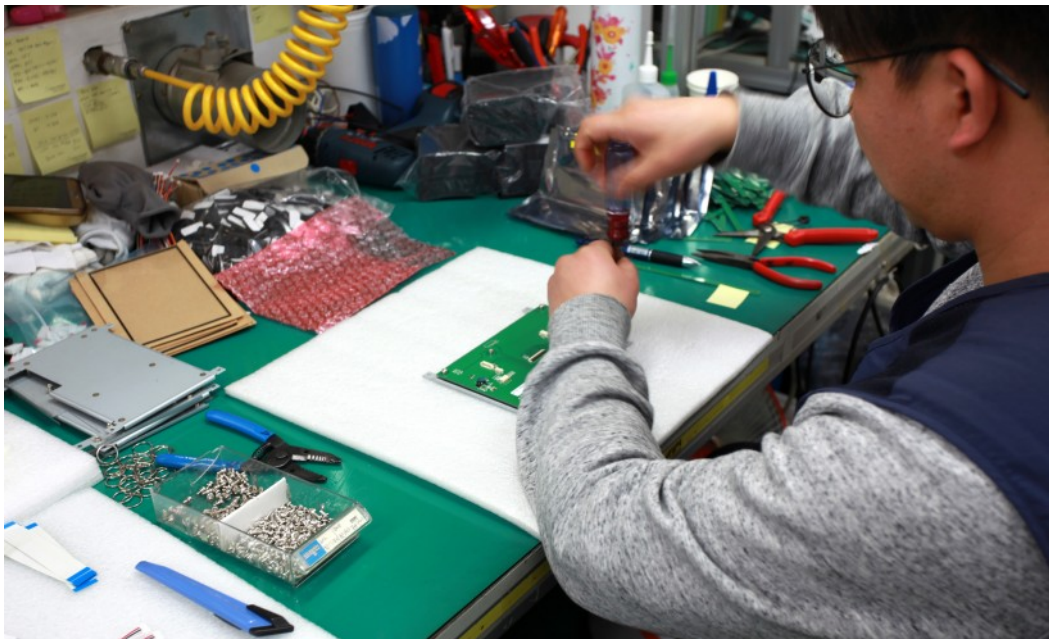
제조업 이력이 30년 이상이다 보니 국내 품목허가를 받은 것만 해도 40여 가지나 된다. 주로 제작하는 제품은 물리치료기로 고주파 · 저주파 · 초음파 치료기, 간섭 전류치료기, 정형용 견인기기 등이 있다.

대양의료기의 주 고객층은 물리치료를 하는 병원이다. 오래전부터 고주파를 이용해 재활치료를 했지만 정확한 치료 프로토콜이 나와 있지는 않다. 그래서 병원 측에서 고주파를 치료 목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프랑스에 있는 파트너사인 윈백(WINBACK)사와 함께 프로토콜을 만들어 조금 더 빠르게 재활을 도울 수 있도록 했다.

제품 개발도 중요하지만 대양의료기의 주 제품이 치료기이다 보니 병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적합한 프로토콜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 기술로 뷰티계열도 개발 및 제품화를 진행해 판매 중이다. 뷰티계열은 유행 패턴이 상당히 빨라서 해마다 제품 1가지 이상을 론칭하지 않으면 운영을 이어가기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계속해서 돌아다니며 새로운 기술과 유행을 파악해야한다.

뷰티 제품은 해외의 경우 뷰티숍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국내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의 문제로 피부과 병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최근에는 일반인들도 가정에서 쉽게 미용을 가꿀 수 있도록 가정용 미용기기에 대한 개발이 진행 중이다.



파트너와 식구들이 원동력

윤정섭 대표는 대양의료기의 원동력이 함께하고 있는 파트너(거래처)와 대양의료기 식구들이라고 말한다. 한 번 거래한 파트너사와는 오랜 시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협력관계를 이어나가고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에서 한 사람이 한 제품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셀 방식을 추구하기 때문에 윤정섭 대표는 직원들의 노력이 대양의료기를 성장시킨 원동력이라고 말한다.

복리후생을 추구하는 대양의료기는 기본적으로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단축시킬 기숙사, 사내식당을 운영 중이며 자기개발 비용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여행경비 지원 등 직원들을 위한 복지에 신경을 쓰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진행되는 사내동호회에 대한 직원들의 기대가 크다. 낚시, 농구, 사이클 등 취미와 관련된 동호회를 만들어 업무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지난 2011년에 한국지식경제부 '일하기 좋은 기업'에 선정돼 직원복지 기업의 면모를 보여줬다.

대양의료기는 지난 50년의 역사를 경험삼아 지금도 다양한 의료기기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 세계로 뻗어나가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기업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강원지역산업 성장의 동반자
(재)강원지역사업평가단

"의료기기 산업으로 강원지역사업 살리기"

강원도를 성장시키는 의료기기 산업

강원지역사업평가단(이하 평가단)은 지역사업 평가관리의 공정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으로 지역사업의 평가 · 관리업무와 기획지원업무 등을 통한 강원지역산업 성장의 동반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지역특화산업의 웰니스식품, 세라믹신소재 및 레저휴양서비스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의료기기산업을 주관했으며, 바이오활성소재 및 휴양형MICARE산업에 참여해 총 1백25개 과제에 3백86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R&D, 산업 생태계 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지역소재 기업 매출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타 지역 간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산업이 대상이 되며 강원도의 경우 의료기기산업이 이에 해당된다.

강원도의 의료기기산업은 1990년대 후반부터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태동해 약 20년 동안 강원도 대표 지역전략산업으로 성장했다.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경쟁력이 높은 산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계속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전후방 연계가 가능한 지역과 협력해 지역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출발한 것이 바로 경제협력권사업 추진의 계기와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강원도 대표산업인 의료기기와 충청북도 참여시도로 48개 과제에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5백억 원을 지원해 많은 성과를 달성했다.

경제협력권사업의 새로운 출발

올해부터 2단계 경제협력권사업이 개편되어 추진된다. 이전에 수행했던 경제협력권사업은 4차산업혁명과 동떨어져 제조업 · R&D 중심의 지원, 경제협력권(광역)중심 사업체계 미정착, 산업인프라 연계 · 협력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지역 간 협업에 의한 지역산업 발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기업 매출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등 주민 체감형 시책추진이 필요하다 판단해 2단계 경제협력권사업을 추진했다.

개편내용은 ▲3개의 산업분야 중 바이오헬스산업과 에너지 신산업으로 지원 분야 개편 ▲협력대상 시도가 충북-전남-제주에서 대전으로 변경 등이 있다. 경제협력형 비R&D 과제는 R&D 과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화의 폭이 커서 단년 사업(3년→1년)으로 전환되고 과제별 예산도 축소(8억→4.5억)되는 등 과도기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2단계 바이오헬스산업은 1단계의 의료기기, 바이오 활성소재, 휴양형 MICARE의 융합연계 산업이다. 바이오헬스산업 참여시도인 대전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의 연구 기관을 중심으로 핵심, 원천, 소재, 부품, S/W 등에 있어 매우 높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반면에 강원도 바이오헬스산업은 비교적 많은 기업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시스템 및 완제품에 집중되어 있어, 대전지역의 강점과 연계된다면 밸류체인의 형성과 양권역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이상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가 기대되는 강원지역사업평가단

평가단은 앞으로 미래기술 및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해 지속적 경쟁 우위를 창출하기 위한 우수과제 선정과 개발된 기술 상품화, 시제품제작 및 마케팅 등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강원지역 산업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효율적인 연구지원과 관리, 새로운 연구가치 창출, 전문적 평가능력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신대용 평가단장은 “강원지역사업의 새로운 방향 설정이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 라며 “지역사업에 관련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 라고 전했다.

우수사례기업
Information

wmit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창의테크

개발기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소프트웨어 자문/개발/공급/IT 컨설팅/자동차전장제품 개발/공급 등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체
대표자명	정태하
주소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로 200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 715호
전화	033-747-5981

㈜성원메디칼

개발기기	의료용품,기기제조
대표자명	이낙호
주소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태성탑연로 199
전화	043-232-6424

㈜대양의료기

개발기기	물리치료기 제조 등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체
대표자명	윤정섭
주소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공단로 147
전화	033-747-4466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로 200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
TEL 033-760-6100 / 033-760-6126(직통) **FAX** 033-760-6199
E-MAIL jennifer@wmit.or.kr **WEB** www.wmit.or.kr
제작 및 편집 네이처앤드피플